

문학석사학위논문

셸리의 이상주의에 관한 연구:
『해방된 프로메테우스』를 중심으로



2012년 2월

부경대학교 대학원

영어영문학과

배천수

문 학 석 사 학 위 논 문

셸리의 이상주의에 관한 연구:
『해방된 프로메테우스』를 중심으로

지도교수 손 달 례

이 논문을 문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2년 2월

부 경 대 학 교 대 학 원

영 어 영 문 학 과

배 천 수

배천수의 문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2년 2월



주 심 문학박사 윤희수 (인)

위 원 문학박사 권영희 (인)

위 원 문학박사 손달례 (인)

목 차

영문초록(Abstract)

I. 서론	1
II. 셸리의 시인으로서의 성장과정과 인류애	4
III. 『해방된 프로메테우스』를 통해 본 셸리의 이상 세계	12
IV. 결론	45
인용문헌	47

A Study of Shelley's idealism with a focus
on *Prometheus Unbound*

Bae, Chun Su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paper explores Shelley's idealism mainly through his poem *Prometheus Unbound*. Shelley who wanted human beings to enjoy a happy life saw social systems and customs that impeded human happiness as enemies to struggle against.

Though Shelley was born into the aristocratic class and raised in accordance with conventional and traditional beliefs of high society, he came to have radical ideas. He was also an excessive equalitarian who felt shame in that his privilege inevitably requires the sufferings of the lower cla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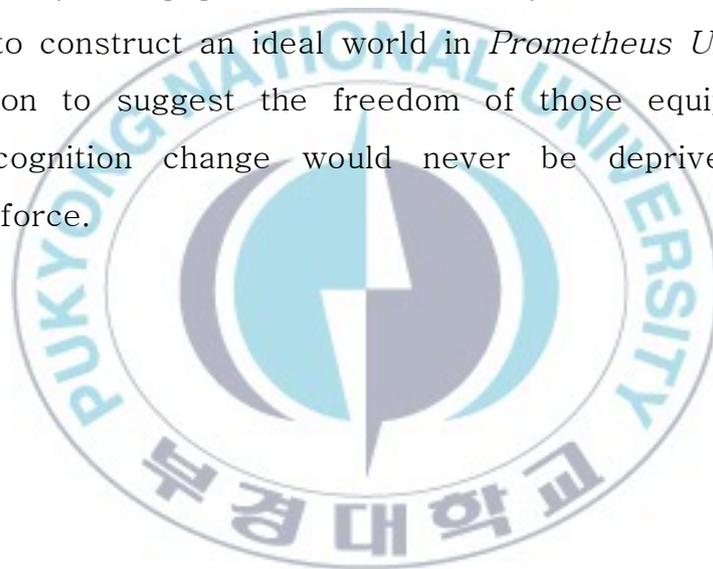
Shelley thought that social evils could be removed by poetry and tried this idea in his works. Shelley's poetry *Prometheus Unbound* begins with the situation Prometheus is bound by chains, and tries to solve social problems to achieve freedom through his nonviolent resistance.

Prometheus gives Jupiter his own power to let the humans

free but Jupiter rules them by tyranny, not by love. Prometheus's protest against Jupiter's tyranny is not to try to achieve his independence from Jupiter by violent struggle or revenge but to make the change in his recognition and see the circumstance rightly.

By gaining right recognition he can recover his morality, and finally he can be completely free from Jupiter's rule.

In this way this paper examines Shelley's humanism and his efforts to construct an ideal world in *Prometheus Unbound*. It goes on to suggest the freedom of those equipped with right recognition change would never be deprived by an external force.



I. 서론

셸리(Percy Bysshe Shelley, 1792~1822)는 자연과 인간을 너무나 사랑한 시인이었다. 그는 사랑하는 인간이 행복해지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래서 인간이 행복해지는 것을 방해하는 많은 제도와 관습들을 타파하기 위해 투쟁했다. 이런 급진적인 사상을 지닌 셸리가 태어나고 성장한 가문은 전통적인 보수주의적 귀족집안이었다. 자신이 특권 신분의 혜택을 누리면서 살아가면 다른 누군가는 이로 인해 피해를 당하게 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특권을 누리는 자신을 부끄럽게 생각 할 만큼 지나친 평등주의자 였다. 옥스퍼드 재학 시절 『무신론의 필요성』(*The Necessity of Atheism*)이라는 소책자를 통해서 무신론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한다. 이 과정에서 사회의 제도와 관습이라는 험난한 장애물을 몸소 경험 하게 된다.

셸리는 낭만주의 시인들 중에서도 가장 혁명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 이 혁명적인 사상은 그의 인류애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평등과 자유를 누리는 인간다운 삶을 되찾아 인간이 무한한 가능성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자신의 삶의 목표로 삼았다. 시를 통하여 세상의 악을 제거할 수 있다고 믿었으며 그의 작품을 통해 이상사회에 대한 비전과 소망을 담았던 급진주의 시인이었다.

셸리에게 이러한 급진적인 성향을 제시해준 인물은 바로 메리의 아버지인 윌리엄 고드윈(William Godwin)이었다. 셸리가 그를 통해 자신을 구속하고 억압하는 기존 사회가 변화되어 나아가야할 방향을 모색하게 된다. 정치적 성향에 영향을 끼친 고드윈의 중심 사상은 『정치적 정의』(*Political Justice*)에서도 언급 했듯이, 국민을 통제

하는 조직의 고유한 권력은 독재를 이끌며 이를 대신 할 대안으로 자립적인 소규모 공동체를 제시한다.

당시 영국 사회는 여러 가지 기계의 발명으로 모든 산업이 크게 발달 하여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고 있었으며 부를 축적한 자본가 계급의 탄생을 가져왔다. 특정 계급에게 부를 가져다 준 산업혁명은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일하는 노동자 계급을 만들어 냈다. 셸리의 시각으로 보면 이러한 노동자 계급은 노동력을 지닌 상품으로 전락되었으며, 정치와 종교는 인간의 복된 삶을 위해서 존재하기 보다는 권력이나 신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인간의 삶을 더욱 힘들게 만들 뿐이라고 생각했다.

셸리의 『해방된 프로메테우스』 (*Prometheus Unbound*)는 프로메테우스가 사슬에 묶여 있는 상태에서 시작하여 자유를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고통 받고 있는 인간 사회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 한다. 프로메테우스는 인간을 자유롭게 하기위해서 주피터에게 권력을 주었지만, 권력을 가지게 된 주피터는 사랑을 포기하고 폭정을 하였다. 이런 폭정에 대항하는 프로메테우스는 폭력적인 투쟁과 복수의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모든 문제를 만든 근본적인 원인을 잘못 사용한 자신의 인식구조 자체의 문제로 보았다. 이는 자신의 인식구조의 개선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도덕성을 회복함으로써 사랑을 찾게 하고 완전한 자유를 쟁취할 수 있게 하는 셸리 자신이 제시하는 사회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도덕성을 회복한 프로메테우스에게 결정적인 자유를 가져다주는 인물은 사랑하는 여인 아시아였다. 셸리는 여성을 포함한 모든 인간이 자유롭고 행복해지기를 바라고 있으며, 자유롭고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데 사랑하는 여성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사상이 포함 되어있

는 것이다.

셸리의 시속에는 사랑의 철학이 담겨져 있다. 그는 「사랑의 철학」(“Love's Philosophy”)이라는 시를 통해 직접적으로 사랑의 철학을 언급하였고, 기타 많은 시에서도 사랑의 철학을 드러낸다. 좁은 의미의 이성 간의 연애 시에서 인간애가 스며있는 「서풍」(“Ode to the West Wind”)에 이르기까지 셸리의 시속에는 사랑이 묻어 있는 것이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초기 작품들은 급진적인 사회철학자 고드윈(William Godwin)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상주의적인 미래 사회의 비전을 품었으며, 후기에는 섬세한 감정을 노래한 전형적인 서정 시인으로 영국 낭만파 중에서 가장 이상주의적인 비전을 가진 시인으로 변모하였다. 작품이나 생애가 당대의 압제와 인습에 갈등과 고뇌를 느끼고, 이상주의적인 사랑과 기쁨만이 아니라 아름다움을 노래한 그는 현실에 대한 개혁 의지와 심리적 갈등에서 벗어나려는 자유의지를 자신의 시에 잘 나타내고 있으며, 바이런(Lord Byron)과 함께 낭만주의 시대의 가장 인기 있는 시인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시와 산문에서 뛰어난 업적을 남긴 그는 갓 서른을 넘긴 1822년 이국땅에서 익사하여 짧은 생을 마감하였다.

본 논문의 목적은 첫째 정치적 압제에 항거한 혁명가로, 인간의 존엄성을 되찾아 모든 인간이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꿈꾸었던 셸리의 성장과정과 인류애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음으로 『해방된 프로메테우스』(*Prometheus Unbound*)를 중심으로 셸리가 그토록 갈구했던 세상의 면모는 어떠했는지를 연구해 보고자 한다.

II. 셸리의 시인으로서의 성장과정과 인류애

셸리는 서섹스(Sussex) 지방의 귀족가문에서 부유한 지주의 아들로 태어났으나 보수주의적인 가정환경과 달리 매우 급진적 기질을 지닌 시인이었다. 휘그당 당원으로 노퍽 공작을 추종했던 그의 부친 준남작 티모시 셸리(Timothy Shelly)는 냉정하고 빈틈없는 전통적인 하원의원이었다. 셸리는 시온 하우스 아카데미와 이튼 학교를 거쳐 옥스퍼드의 유니버시티 칼리지에 입학한 영재였다. 그는 어릴 때부터 묘지에서 놀기를 좋아했고 화학실험을 즐겨 연금술을 배웠으며 화약이나 염산을 가지고 놀며 상처도 입고 옷을 태우는 등 호기심 많고 창의성이 풍부한 괴짜 학생이었다. 성장과정에 나타나 있듯이 셸리의 삶은 어린 시절부터 기존 질서에 순응하며 자신들에게 주어진 특권을 최대한 누리면서 살아가는 대부분의 귀족 자제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행동들을 보이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귀족 자제들은 전통적인 관습이 지배하는 가정환경에서 개인의 호기심을 표출하는 행동을 하게 되면 많은 제재를 받게 마련이다. 특이하게도 셸리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특권 계층의 우위성을 누리고 있는 자신을 부끄럽게 생각하였다. 다른 사람들과 불평등하게 우대 받음으로써 그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는 것을 결코 허용할 수 없는 강한 인류애를 지닌 평등주의자기 때문이다.

인간의 존엄성을 되찾아 인간다운 삶을 회복시키고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을 구현하는 것을 자신의 삶의 목표로 삼았다. 게다가 불의가 만연하는 사회를 개선 의식 없이 무감각하게 바라보는 일반 대중들의 정신을 일깨우는 것이 자신과 같은 시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이라고 역설했다. 그래서 그는 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일반

대중들의 인식구조를 개선시킬 목적으로도 많은 작품들을 썼다. 이런 작품들을 통해서 일반 대중들은 “인식되지 않았던 사물들과 사람간의 관계를 인지”하는 능력을 갖게되고, 비판적 기능을 발휘 할 수 있게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손달래 2).

그리고 셸리는 워즈워스가 사회변화를 위한 시를 쓰지 않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겨 「워즈워스에게」 (“To Wordsworth”)라는 시를 지어 보낸 적도 있다.

자연의 시인이여, 당신은 다시는 되돌아올 수 없는 것들이
떠난다는 사실을 슬피 노래하셨지요.
어린 시절과 청년 시절, 우정과 사랑의 첫 번째 불꽃은
감미로운 꿈처럼 사라졌다고, 당신은 슬픔에 잠겨 있었지요.
그렇게 흔한 고통은 나도 느낍니다. 또 다른 하나의 고통은
당신도 역시 느끼시겠지만 아직 나 홀로 한탄하고 있어요.
당신은 외로운 별과 같소, 그 빛은 깊은 겨울밤의 어둠 속에서
어떤 가냘픈 배 위를 비추어 주었지요.
당신은 바위로 지어진 피난처를 고집하셨지요.
눈멀고 아귀다툼하는 민초들과 멀리 떨어진 저 높은 곳에:

Poet of Nature, thou hast wept to know
That things depart which never may return:
Childhood and youth, friendship and love's first glow,
Have fled like sweet dreams, leaving thee to mourn.
These common woes I feel. One loss is mine
Which thou too feel'st yet I alone deplore.
Thou wert as a lone star, whose light did shine
On some frail bark in winter's midnight roar:
Thou hast like to a rock-built refuge stood
Above the blind and battling multitude: (To Wordsworth 1-10)

셸리는 아름다운 서정을 즐기는 감성도 지니고 있지만 인간이 평등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이상사회 건설을 주장하는 강렬한 시를 써서 인간을 억압과 착취로부터 구원하고자 한 진정한 휴머니스트이기도 했다. 셸리는 시를 통하여 세상의 악을 제거하고 세상을 개혁하려는 이상주의자였으므로 『시의 옹호』 (*A Defence of Poetry*)에서 도덕의 요체는 사랑이며, 도덕적 선의 위대한 수단은 상상력이며, 시인은 예언자임을 천명하고 있다(Vol., VII, 136). 그리고 이상사회에 대한 비전과 소망을 자신의 작품을 통하여 일반 독자들에게 제시하였으며 투철한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인류애를 표출하고자 노력했다.

셸리를 편견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에게 퍼버(Michael Ferber)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그를 어린 청소년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폭력적이고 반동적이며 전통에 얽매인 부패 위선적 사회와의 일련의 타협들을 ‘성숙함’이라고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셸리는 위험하게도 상실의 기로에 있는 인간의 희망에 접근하여 이를 문학의 위대한 주제로 삼았다. 그를 비난하는 것은 개혁의 필요성에 의해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도덕적 우수성에 입각한 아름다운 이상주의’를 거부하는 것이다. 이는 냉랭한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에 등을 돌리는 것이다. 그의 시에 공감치 못하는 좁은 가슴을 지닌 사람은 죽은 이와도 같다.

To disapprove of him as 'adolescent' is tacitly to approve as 'mature' a set of compromises with the violent, reactionary, tradition-bound, corrupt, and hypocritical society and government and Shelley is to come dangerously close to dismissing human

hope, which Shelley made one of his great themes. It is to reject the 'beautiful idealism of moral excellence' that might inspire us to reform a society that always needs it. It is to turn one's back on youth and the possibility of rejuvenating this wintry world. It is death to have a heart so narrow as to have no room in it for Shelley's poetry. (Ferber 6-7)

어쩌면 셸리의 인생은 종교, 정치, 사회 그리고 가정의 억압으로부터 인간의 행복을 영원히 지켜줄 수 있는 이상사회 건설을 위한 혁명가의 삶이라고도 할 수 있다.

기존 질서의 틀 속에서는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일이라도 그가 생각하기에 옳다고 판단되면 실행에 옮기는 행동주의자이기도 했다. 이처럼 그의 독단적인 행동은 그의 인생을 평탄하지 않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일례로 옥스퍼드 대학에서 만난 호그(Thomas Jefferson Hogg)와 『무신론의 필요성』(*The Necessity of Atheism*)이라는 팜플렛을 만들었을 때, 이 책의 내용이 무신론의 옹호가 아닌 단순한 지적 호기심에 의한 개인적인 표현에 불과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하여 대학으로부터 퇴학을 당하자 큰 충격을 받았다. 무신론에 대한 여파는 킹 헬리(King-Hele)도 언급했듯이 셸리에게는 대단한 충격이었다. 그리고 셸리 자신이 앞으로 투쟁해서 싸워야 할 거대한 과제이기도 했다. 이 사건으로 그의 사촌 헤리엇 그로브(Harriet Grove)와의 약혼도 파기되는 듯했다.

몇 달 후에, 헤리엇의 아버지와 어머니(셸리의 이모)는 셸리의 무신론에 대한 의견을 듣고 놀랐고 헤리엇은 그를 다시 만나는 것이 금지되었다. 셸리는 매우 당황하였다. 그것이 그가 그로부터 열두 달 동안 매우 어리석게

행동한 이유 중의 하나이다.

A few months later Harriet's father and mother(who was Mrs. Shelley's sister) became alarmed at Shelley's atheistic opinions, and Harriet was forbidden to meet him again. Shelley was very upset: that is one of the reasons why he acted so unwisely in the next twelve months. (King-Hele 10)

게다가 옥스퍼드 퇴학 후 아버지의 냉엄한 태도는 그를 더욱 견디기 힘들게 만들었다. 이런 불안정한 상태에서 그래도 셸리가 의지할 곳이라고는 헤리엇과 그녀 집안의 도움뿐이었다. 그녀를 통해 심적으로 의지하게 되고 생활에 대한 경제적 도움으로 인해 셸리와 헤리엇은 결혼까지 하게 된다.

하지만 사회에 대해 그가 가졌던 혁명적인 기질은 결혼 생활에서도 그대로 나타나 평탄한 가정 유지를 어렵게 만든다. 그리고 그의 결혼관은 아내조차도 자기의 사랑의 울타리에 가두어 둘 수 있는 존재라기보다 인류의 일원으로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는 혁신적인 평등주의 사상을 지니고 있었다. 이런 그의 자유연애주의는 보수적인 그 시대 상황을 감안 해 볼 때 일반적인 사고의 틀을 갖고 있는 여성이 감내할 수 있는 사고의 수준이 아니었다. 이러한 가정관으로 인해 헤리엇과의 가정생활은 셸리에게 더 이상 행복을 주지 못하게 된다. 결국 셸리는 헤리엇과 이혼하고 1818년에 고드윈의 딸 메리(Mary Godwin)를 만나 결혼했다. 그로인한 충격으로 헤리엇은 비관적인 삶을 견디지 못해 물에 빠져 자살하게 된다. 런던에서 그는 무신론자, 혁명주의자였다가 특히 여자 문제가 좋지 않은 부도덕한 사람이라는 혹평을 받는다. 그리고 그가 끝까지 고수한 자신의 자유주의 연애관에 대한 어려움을 인식 하고 있었음을 다음

에서 알 수 있다.

셸리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리고 이성적으로 함께 살아야 한다는 그의 신념을 포기하기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신념이 엄청난 실제적인 어려움이 수반된다는 것을 인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Shelley never gave up his belief that people ought to live naturally and rationally together, but he did come to recognize the great practical difficulties involved. (Neil 95)

부도덕이라는 멍에를 안고도 진정한 사랑을 찾겠다는 그의 애뜻한 사랑의 일면을 여인들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당시 대부분의 남녀 관계에서 여성은 남성의 보호아래 순응하며 살아가는 가부장적인 구조라는 점을 감안하면 셸리의 자유 연애주의 애정관은 혁명을 넘어서 패륜에 가까운 사고방식이었다. 그러나 그가 추구하고자했던 사랑은 자유주의 연애를 통한 영적인 교감이 가능한 이상주의적 관계였다. 셸리는 여성이 남성에 예속되는 관계가 아닌 남성과 동등하게 사회를 구성하는 중심적인 존재로 여겼다. 그래서 남성에 의해 행복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존재이기를 바랐다. 그래서 그의 작품 『해방된 프로메테우스』에서 프로메테우스를 해방시키는 중심적인 인물도 여성인 아시아로 그리고 있다.

그는 기존 사회의 사고방식이나 관습 등 보수적인 생각들이 자신을 구속하고 억제하므로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강한 욕구를 느끼게 된다. 그런 그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던 생각들은 개혁적인 사상을 지닌 부모의 영향을 받고 자란 메리와 그녀의 아버지 윌리엄 고드윈을 만남으로써 커다란 감화를 받는다. 메리의 어머니

는 18세기 말 그 당시에 여성 해방을위한 자유사상의 강력한 선구자였으며 『여성 권리의 옹호』(*A Vindication of the Right of Woman*)와 『여성의 고통』(*The Wrongs of Woman*)을 쓴 메리 울스턴크래프트(Mary Wollstonecraft)였으며, 아버지는 당시의 급진적 자유사상가이자 사회개혁가의 뜻을 가진 철학자인 윌리엄 고드윈이다. 기존 사회의 보수적인 억압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셸리의 사상에 고드윈이 끼친 영향력은 실로 크다. 특히 셸리는 윌리엄 고드윈의 『정치적 정의』(*Political Justice*)를 읽게 되면서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이상주의 사상에 빠지기 시작하였다.

고드윈은 이 책에서 국민을 통제하는 조직의 고유한 권력은 독재를 이끌며 자립적인 소규모 공동체가 자유로운 지적 탐구를 촉진하고 “공평한 부의 분배가 이루어지는 만족스런 무정부주의 사회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정치논의를 펼쳤고 셸리는 그의 철학을 포용하였다(신현승 166).

셸리의 근본적인 심성을 들추어보면, 이튼 스쿨을 거쳐 옥스퍼드 대학에 입학하기까지의 셸리의 학창 생활은 풍족한 삶의 연속이었으나, 보통의 귀족 계층 사람들의 사고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인식과 자세를 갖고 있었다. 즉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적 우위성을 달갑게 받아들이지 않았고, 자신의 삶을 통해 사회제도의 모순을 사람들이 깨닫도록 노력하였으며, 기성제도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었다. 그는 이미 가지고 있던 물질적, 사회적 혜택을 경멸했으며 그러한 특권적 위치에서 벗어나기를 원했다. 여기서 도슨(Dawson)은 사회적 지위로서의 계층에 대한 셸리의 부정적 인식을 언급한다. 외부적으로 표출된 인간의 계급화는 셸리에게 혐오스러운 사회적 억압이었으며, 셸리는 상반된 계층의 성립이 인간의 비이성적 사고의 산

물이라고 믿었고 이를 타파하려고 마음먹은 사람이었다.

(자신이 속한) 계층에 대한 셸리의 자의식은 필연적으로 죄의식을 동반했다. 이는 스스로를 특권층의 일원으로서 부당한 사회 제도로부터 이득을 취한 ‘압제자’임을 인식하게 만들었다. 1811년에 “나는 이런 특권을 누리고있는 사람들 중에 한명이다.”라고 고백을 한다.

“내 안엔 나 역시 압제자가 될 수 있고 또 그렇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타인을 구속하기 위한 똑같은 식의 술수가 도사리고 있다.” 이러한 계층과, 출생과 함께 자신에게 부여된 사회적 지위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셸리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Shelley's consciousness of class was inevitably a guilty one; it identified him as one of the privileged, an 'oppressor' who benefited from an unjust system. 'I am one of these aristocrats', he confessed in 1811.

'In me . . . the same machinery of oppression is preparing, in order that I also in my turn may become an oppressor'. He did all that he could be escape from his class and the position that his birth into it had prepared for him. (Dawson 36)

다시 말해 셸리는 세습되어진 계층의 우위성을 수치스러워했고, 그러한 수치심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원했다. 타인들에게 피해를 입힘으로써 조상들이 성취한 부와 권력을 용납할 수 없었고, 그러한 피를 이어받은 자신을 혐오한 것이다. “모든 인간은 동등한 권리를 가지며, 누구도 자신의 욕심을 위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셸리의 강한 자의식”이 그의 사상에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이원철 9). 이렇게 기존 제도와 관습을 거부하는 그의 평등주의 사상은 그의 인류애에도 그대로 나타난다.

III. 『해방된 프로메테우스』를 통해 본 셸리의 이상 세계

셸리는 국내외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격동의 시대를 겪으면서 성장하였다. 1760년부터 1840년 사이의 영국에서는 산업혁명에 의하여 과학과 경제가 급격하게 발전하였다. 1776년에 발발한 미국 독립전쟁, 1789년의 프랑스 혁명, 그리고 1796년 나폴레옹 전쟁은 국제 사회의 대변혁을 가져왔다. 이러한 사회변화를 통해 많은 모순들이 나타났고 사회에 대한 예리한 통찰력을 가진 청년 시인 셸리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려는 이상적 신념을 마음속에 다지게 된다. 또한 셸리는 혼란스러운 사회상에 대해서 행동하지 않는 지식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도덕, 정치, 경제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현명하고 더욱 선한가, 이러한 것에 관한 지식은 충분하다. 그러나 속담에 있는, 손을 적시지 않고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는 가엾은 고양이와 같이 ‘하겠다’고 하는 말을 하기가 무섭게 ‘할 수 없다’라고 우리들은 말할 뿐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상상에서 살려내는 창조적 능력이다. 상상의 내용을 행동으로 옮기는 풍부한 충동이다. 생명의 시이다.

There is no want of knowledge respecting what is wisest and best in morals, government, and political economy, or at least, what is wiser and better than what men now practice and endure. But we let 'I dare not wait upon I would, like the poor cat in the adage.' We want the creative faculty to imagine that which we know; we want the generous impulse to act that which we imagine we want the poetry of life. (Cronin 56-57)

산업혁명으로 영국 사회는 옷, 통조림, 펜 등 다양한 물품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왔고 당시의 영국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급격한 풍요를 누리게 된다. 공장이 계속 세워지고 공장 노동자 수요가 증가하므로 농업, 목축업 등 1차 산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의 대부분이 공장 노동자의 신분으로 전환하게 된다. 이런 변화 속에서 상대적인 약자인 노동자들은 많은 노동임금 착취와 인권 억압을 당하게 된다.

휴머니즘에 투철한 시인 셸리의 관점으로 당시 사회를 보면, 인간은 산업혁명으로 인해 노동력을 가진 상품으로 전락되었고 국민들의 권익을 대변해야 하는 정치인들은 더 이상 국민들의 편이 아니었다. 이런 체제로는 국민들의 권익을 보장 받기가 불가하며 근본적으로 권력의 목적이 잘못된 방향으로 유용되고 있는 체제를 타파하지 않고는 셸리가 꿈꾸는 모든 인간이 평등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이상적인 사회를 기대하기가 불가능 했다. 그래서 셸리 자신은 이 체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국민들은 억압 속에서 삶을 유지 할 수밖에 없으며 권력자들은 국민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지배구조를 유지, 종속시키려는 이기적인 집단에 불가한 비참하고 우울한 시대라고 판단했다.

이러한 잘못된 산업사회의 체제 형성 원인을 “지배자들과 일반대중들의 인식구조”에서 찾으려 했다(이일재 5). 즉 지배자들은 그들의 사상을 절대적인 진리로 간주하여 그들의 것만이 옳다고 믿는 독단에 사로잡혀 있었고, 일반대중들은 잘못된 지배구조를 바꾸려는 인식이 결여된 채, 좌절감에 빠져있다고 진단하게 되었다. 이러한 잘못된 인식구조가 개선되지 않는 한 이상적인 사회 건설은 요원하기만 했다. 그리고 셸리의 판단으로는 오만에 사로잡혀있는 지배자란 일반 대중의 존경을 받지 못하고 단지 권력욕에 눈이 어두운 이기주의

적인 인물에 불가하다고 진단했다. 그런 지배자들에 대한 후대의 평가를 셸리의 작품 「오지만디어스」 ("Ozymandias")에서는 고대 이집트의 강력한 왕권을 행사한 오지만디어스 왕과 비유해서 비판하고 있다. 권력의 무상함을 나타낸 이 시는 지배자로 하여금 헛된 야망에 매달리는 어리석은 삶을 지양하라고 경고하고 있다.

고대의 나라에서 온 한 나그네를 만났는데
그이가 이렇게 말하였다. 동체 없는 두 거대한 돌다리가
사막에 서 있다. 가까운 곳 모래 속에
부서진 두상이 반쯤 묻혀 있는데 그 찌푸린 표정
주름 잡힌 입술, 싸늘한 명령이 담긴 냉소를 보면
조각가가 그 걱정들을 잘 읽었음을 알 수 있거니와
그것들은 생명 없는 물체에 찍혀 그것들을 비웃은 손과
그것들을 키운 심장보다 더 오래 살아남아 있다.

I met a traveller from an antique land
Who said—"Two vast and trunkless legs of stone
Stand in the desert, near them, on the sand,
Half sunk, a shattered visage lies, whose frown,
And wrinkled lip, and sneer of cold command,
Tell that its sculptor well those passions read
Which yet survive, stamped on these lifeless things,
The hand that mocked them and the heart that fed.(Shelley 103)

정치와 권력은 왕이나 통치자의 안위를 지키는 수단이 아니며, 종교는 신을 섬기기 위해 만든 제도가 아니다. 인간의 복된 삶과 선을 추구하기 위해 인간이 만들어낸 형식에 불과 하다. 그런데 정치, 종교와 같은 형식이 인간의 삶이라는 소중한 내용을 지배하고 있는

모순된 사회를 시인 셸리는 비판하고 있다. 정치라는 이름으로 지배자가 권력을 남용해서는 안되며,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종교가 인간의 삶을 폄박해서도 안 된다는 메시지를 작품 『매브 여왕』 (*Queen Mab*) 속에서도 찾을 수 있다.

황야를 떠도는 아라비아 사람들은 제대로 생긴 천막도 없어서 찢겨진 천이 바람에 울고 있는데 종교 숭상을 위해 수천 개의 찬란한 금색 돔으로 지어진 신전이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형체도 없는 신을 모시는 신전은 찢겨진 천막에서 자는 신자들의 혈육을 강탈하여 지은 집이다. 그리하여 둥근 금빛 돔은 마치 사람의 얼굴 같아서 햇빛을 받아 찬란하게 빛나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워서 얼굴이 붉어진 것이라고 묘사하고 있다.

저 불모지를 보세요,
지금 떠도는 아라비아인의 천막은
사막에서 돌풍에 흩날리며 울고 있습니다.
옛날 고대 살렘의 오만한 신전
수천의 금색의 돔은 하늘을 닿을 듯 높이 세웠습니다.
대낮에는 붉은 빛의 얼굴들이
수치스런 영광을 드러냅니다.

"Behold yon sterile spot;
Where now the wandering Arab's tent
Flaps in the desert-blast.
There once old Salem's haughty fane
Reared high to heaven its thousand golden domes,
And in the blushing face of day
Exposed its shameful glory. (Shelley 14)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고, 인격이 존중되는 아름다운 인간의 삶은 셸리가 시를 통해서 좌절감에 빠져있는 일반대중들에게 찾아 주어야 했던 이상적인 인간 사회이다. 그리고 인간을 너무도 사랑했던 시인 셸리가 반듯이 성취하려고 했던 사명이기도 했다. 이러한 이상적인 인간 사회를 실현하기위해 그의 시 『해방된 프로메테우스』 (*Prometheus Unbound*)를 통해서 제시하는 문제 해결 방법은, 좌절감에 빠져있는 일반대중들의 인식구조를 변화시켜 프로메테우스가 주피터로부터 자유로워졌듯이, 일반 대중들도 지배자로부터 완전한 자유와 평등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의 제반적인 모순들은 셸리 시대 일반대중들의 인식구조로는 당연한 결과로 해석하고 일반대중들의 인식구조 변화를 주장한다. 그리고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구조 개선 의지를 인도해야 하는것은 바로 자신과 같은 시인이라고 주장한다. 이런 정치적인 성향을 가진 셸리를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테트로(Ronald Tetreault)의 언급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셸리가 이 세상을 떠난 후, 그의 시는 그를 정치적 시인으로 보았던 급진주의자들에 의해 거의 독보적으로 존경을 받았다. 그런 부류의 사람들 중의 한 시인으로서 평가를 받은 셸리는 자유의 옹호자이자 압제와 맞서 싸우는 투사로서 찬양을 받았다. 그러나 그의 시는 단순히 항거의 목소리로 간주된 것이 아니었다. 특히, 독자들이 얻으려고 노력하는 사회 조직의 형태를 마음속에 그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의 시는 높이 평가되었다. 그의 시는 민중에게 적극적인 행동으로 실천하는 동기를 부여했고, 그의 시의 본질은 정치적인 이상에 따라 새롭게 만들어진 세상을 그린 그림이었다.

In the generation after his death, his poetry was esteemed almost exclusively by radicals who saw his as primarily a political poet.

Valued as a poet of the people, Shelley was hailed as an advocate of liberty and a champion of the oppressed. But he was not regarded simply as a voice of protest; above all, his poetry was prized because it could envision forms of social organization towards which readers were invited to strive. His style stirred the masses to action, and his substance was the picture of the world remade according to a political ideal. (Tetreault 16)

셸리에게 시인이란 보통 사람들보다 섬세한 감수성과 예리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였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세상의 진실을 시인만이 가지고 있는 예리한 감각으로 인지 할 수 있는 것이며, 이러한 초감각적 인지능력을 가지고 있는 시인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정상적인 일련의 행태들에 대해 정확히 일반 대중들이 인식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개선시키는 일을 선도하는 것은 시인 자신의 당연한 의무라고 여겼다. 또한 이런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시인 자신은 세상과 더불어 우주 속에 존재하는 유무형의 모든 것들을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하며 초감각적 인지능력을 통해서 일반인들에게는 부족한 고도의 상상력과 창조력을 가질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여겼다. 셸리는 르네상스 시대에서 이탈리아 최고의 시인 타소 (Tasso Torquato, 1544-1595)의 말을 빌려 시인을 창조자로 볼 때 사실상 창조자는 신과 시인 밖에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시인은 폭정과 독재에서 벗어나는 이상적 사회의 건설까지도 시인이 감당할 수 있다고 역설한다. 이런 그의 사상을 잘 반영한 작품이 바로 『해방된 프로메테우스』이다. 그는 이 작품에서 폭정과 독재에서 벗어나서 완전한 자유와 사랑을 쟁취해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또한 그는 일반 대중들에게 자유를 쟁취하는 방법은 폭력이 아니고 인식 구조의 개선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그

는 이 작품에서 지배와 반목이 아닌 사랑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세상에 대한 “그의 궁극적인 열망”과 시인으로서의 그의 “당면한 의무감”을 고전 신화의 구조를 빌어 전달한다(Watson 227).

『해방된 프로메테우스』의 서문에서 셸리 자신의 프로메테우스는 이스킬러스의 개인적인 구원만을 생각하고 주피터에게 테티스와 결혼의 위험성을 알려주는 댓가로 풀려나는 나약한 프로메테우스와는 다르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사실 나는 인간의 압제자와 영웅을 화해시키는 것과 같은 그렇게 약한 결말에 반대한다. 만약에 우리가 프로메테우스를 그의 성공한 그리고 불성실한 적 앞에서 겁내고, 그의 고귀한 언어를 취소하는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었다면, 프로메테우스의 고통과 인내에 의해 매우 힘있게 유지되었던 우화의 도덕적 관심은 없어졌을 것이다. 조금이라도 프로메테우스를 닮은 유일한 상상의 인물은 사탄이다. 그리고 나의 판단으로는 프로메테우스는 사탄보다 더 시적인 인물이다. 왜냐하면, 용기, 장엄함, 그리고 전능한 힘에 대한 확고한 참을성 있는 저항을 하는 인물인면서, 그는 『실락원』의 주인공에서 그러한 관심을 저해하는 야망, 질투, 복수, 그리고 개인적 과장에 대한 욕망과 같은 결함이 없는 인물로 묘사될 수 있기 때문이다.

But in truth I was averse from a catastrophe so feeble as that of reconciling the champion with the oppressor of mankind. The moral interest of the fable which is so powerfully sustained by the suffering and endurance of Prometheus, would be annihilate if we could conceive of him as unsaying this high language, and quailing before his successful and perfidious adversary. The only imaginary being resembling in any degree Prometheus, is Satan; and Prometheus is, in my judgement, a more poetical character than Satan because, in addition to courage and majesty and firm and

patient opposition to omnipotent force, he is susceptible of being described as exempt from the taints of ambition envy, revenge, and a desire for personal aggrandizement, which in the Hero of Paradise Lost, interfere with the interest. 1)

셸리는 프로메테우스가 압제자인 주피터와 타협함으로써 사슬에서 풀려나는 나약한 영웅이기를 원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셸리의 프로메테우스는 압제자인 주피터에 굴복하여 타협하는 그런 인물이 아니다. 셸리의 프로메테우스는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 주피터에게 폭력적으로 대항하는 인물로 그리지 않고, 모든 문제의 근원은 자기 자신의 인식 구조에서 비롯된 문제임을 스스로 인지하면서 도덕적으로 완성 되어 가는 과정의 인물로 그리고 있다. 또한 프로메테우스는 주피터라고 하는 악에 저항할 수 있으며 악을 타도 할 수 있는 용기를 지녔지만, 그런 힘을 그의 개인적인 지위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결코 사용 하지 않고 압제자에 대한 복수심을 철회 할 만큼 도덕적으로 성숙한 인물로 그리고 있다. 그는 주피터를 권좌에서 몰아내는데 성공하지만, 자신이 그것을 탐냄으로써, 또 다시 반복되는 지배의 순환을 원하지 않는 것이다. 그는 “도덕적이고 지적인 본성의 최고의 완성 형태”라고 할 수 있다(Vol., II, 175). 셸리는 프로메테우스의 고통을 인간적인 것으로 그리면서 동시에 그의 끝없는 저항을 신과 같은 것으로 그린다. 그의 프로메테우스는 인간으로서 신적 자질을 가진 존재, 인간이면서 인간이상의 존재인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프로메테우스의 이러한 특성은 “셸리의 신화 만들기”에서 매

1) Shelley, Percy Bysshe. *Shelley's Poetry and Prose: Authoritative Texts, Criticism Eds.* Donald H. Reiman and Sharon B. Powers. New York: Norton, 1977.(Prometheus Unbound Preface 176)

Prometheus Unbound 는 이 책에서 인용 하였으며, 이 후로는 PU로 약칭해서 표기함.

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Bloom 57).

주피터의 지배와 프로메테우스의 속박이라는 지배 계급과 피지배 계급의 탄생은 프로메테우스가 주피터를 지배자로 인정하는 한 영원히 지속 될 수 밖에 없는 관계 구조이다. 지배 계급의 타락과 일반 대중의 제도적 개선의식의 부재는 일반대중들의 현실 인식 부족과 지배자들의 도덕성 결여에 그 책임이 있다. 그래서 불의로 가득 차 있는 인간 사회가 자유롭고 행복 해 질수 있는 방법은 일반 대중들의 인식 수준을 향상시켜 그들이 압제자들의 면목을 정확히 인지 할 수 있도록 하며, 인간으로써 일반 국민들이 누려야 하는 권리를 알도록 해서 지배자들이 감히 일반 대중을 우매한 착취의 대상으로 취급하는 우를 범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속박되어 있는 프로메테우스를 통해 고통 받고 있는 인간 사회의 문제점을 진단하며 해방되어가는 프로메테우스를 통해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려고 했다.

『해방된 프로메테우스』는 프로메테우스가 사슬에 묶여 있는 상태에서 시작한다. 이스킬러스의 프로메테우스는 주피터의 율법을 어기고 인간에게 불을 가져다 준 죄로 묶였지만, 셸리의 프로메테우스는 그의 도덕적인 의지를 잘못 사용함으로써 스스로에게 구속을 당한 존재이다.

프로메테우스: 사악한 마음들은
선을 그들 자신의 본성에 따라 바꾼다.
나는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주었고, 보답으로 그는 나를 이곳에
수년, 수 십 년, 밤낮으로 묶어둔다.

Prometheus: Evil minds
Change good to their own nature. I gave all

He has, and in return he chains me here

Years, ages, night and day: (PU, I, 380-2)

주피터의 몸은 비록 프로메테우스와는 달리 묶여있는 상태가 아니지만 정신적으로는 권력 유지를 위한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서 불안함과 공허함이 가득한 고립된 상태이다. 이는 데모고르콘과의 대면 장면에서 아시아의 입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묘사된다.

신의도 사랑도 법도 모른채

친구 없이 전능한 자가 되는 것이 통치다.

그리고 조브는 지금 그렇게 통치한다. 인류에게

처음에는 기근, 그리고 고생, 그리고

투쟁, 상처, 예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무시무시한 죽음이

닥쳤다. 그리고 때에 맞지 않는 계절이

교체하는 활, 서리, 불로

안식처 없이 창백한 부족들을 산의 동굴로 몰아갔다.

그리고 그들의 황량한 마음은 그가 보낸 것을 강하게 원하고,

미친 불안과 비현실적인 선의

무익한 그림자는 서로 전쟁을 시작해서

그렇게 사납게 날뛰며 은신처를 파괴했다.

To know nor faith nor love nor law, to be

Omnipotent but friendless, is to reign;

And Jove now reigned; for on the race of man

First famine and then toil and then disease,

Strife, wounds, and ghastly death unseen before,

With alternating shafts of frost and fire.

Their shelterless, pale tribes to mountain caves;

And in their desert hearts fierce wants he sent

And mad disquietudes, and shadows idle

Of unreal good, which levied mutual war,

So ruining the lair wherein they raged. (PU, II, iv, 47-58)

프로메테우스가 고립되어 묶여 있을 때, 그의 곁에 아이온과 팬시아가 있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주피터는 친구 없이 통치를 하는 전능자로 묘사된다. 주피터의 통치는 억압을 통해서 유지되는데 이는 프로메테우스가 주피터에게 권력을 넘겨주면서 세상을 이해와 사랑으로 다스리기를 원했던 개념과는 완전히 다른 통치 방법이다. 이것은 주피터가 전혀 인간에 대한 동정심과 사랑을 지니고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런 통치는 인간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그것은 기근, 고난, 질병 등 외부적인 시련 뿐 아니라 전쟁을 유발하는 서로에 대한 적개심으로 나타난다. 증오는 인간이 자신의 은신처인 굴을 스스로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부정적인 상황을 만드는 마음 상태로, 고립된 인간이 보이는 자기 파괴적인 성향을 내포하고 있다. 프로메테우스는 인간을 다스리는 지배권을 주피터에게 넘겨줌으로써, 그 자신과 인류 전체를 불행한 상태에 빠뜨리는 중대한 실수를 하였다. 인간을 자유롭게 하기위해서 주피터에게 권력을 주었지만, 지배자가 되어서는 권력욕에 눈이 어두워져 사랑을 포기하고 폭정을 하였다. 그러자 프로메테우스는 주피터에 대한 미움과 저주를 그에게 퍼부었다. 그 결과 프로메테우스는 코카서스 암벽에 묶이게 되어 고통을 당했던 것이다.

결국 주피터가 폭군이 된 것은 그의 도덕성 결여 때문이 아니라, 프로메테우스가 그에게 권력을 줌으로써 생긴 필연적인 결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Rader 106). 주피터에게 인간을 자유롭게 하라는 역할을 부과한 사실 자체가 프로메테우스의 판단 착오였다. 왜냐하면 인간의 궁극적인 자유는 지배자의 선한 정치와 같은 외부의 제도적인 것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고, 인간들이 스스로 자신

들의 상황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했다(233). 프로메테우스의 해방은 주피터의 선한 마음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프로메테우스 스스로 자기인식 과정을 거쳐 신성을 회복하여야만 이룩하고 지켜나갈 수 있는 과정의 당연한 결과라고 했다. 셸리의 신화에서는 주피터는 고전적 의미의 전능한 신이 아니라, 바로 프로메테우스에게서 힘을 받은 존재인 것이다.

셸리가 신화를 바탕으로 창작한 작품인 『해방된 프로메테우스』를 통해서 진정으로 시인 셸리가 대중들과 함께 추구하고자하는 이상적인 사회는 프로메테우스의 인식 구조의 변화를 필연적으로 수반하여야만 가능하다고 보았다. 프로메테우스를 “인간, 더 구체적으로 인간의 정신을 나타낸다”고 보았을 때, 이 시의 각각의 등장인물들은 프로메테우스의 본성에 내재하는 모든 요소들을 객관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주피터는 프로메테우스가 타락 했을 때의 그 악한 본성을 상징하며, 아시야는 가장 이상적인 상태의 프로메테우스를 상징한다. 프로메테우스는 “하나의 정신”(One Mind) 상태에서 분열되었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Wasserman 157). 그래서 이 작품은 불완전한 프로메테우스가 완전한 상태로 변화되어 과정을 그리고 있고, 작품의 진행은 그의 내면의 갈등과 인식 구조 변화의 과정을 통해서 완전한 도덕성을 회복하여 신성을 되찾는 과정에 집중되어 있다고 본다.

프로메테우스는 저주와 원한에 사로잡혀 있었던 3000년 동안의 고통을 벗어나고자 이제 그를 구속했던 저주와 증오를 철회하고자 했다.

프로메테우스: 경멸한다고? 아니 그렇지 않다! 나는 그대를 동정한다.

... 나는 환희가 아닌,

슬픔에 잠겨서, 말하노라, 불행이 나를 현명하게 만들기 전처럼,
나는 더 이상 증오하지 않기 때문에, 예전에
그대 위에 내뿜었던 저주를 나는 거두어 들이고 싶다.

Prometheus: Disdain? Ah no! I pity thee.
. . . I speak in grief,
Not exultation, for I hate no more,
As then ere misery made me wise. The curse
Once breathed on thee I would recall. (PU, I, 53-59)

프로메테우스를 불완전한 상태로 만든 저주와 증오를 철회 하는 과정은 자기인식 과정에서 필수적인 요소 인데, 그래서 저주와 증오를 철회하는 프로메테우스의 행동은 이 작품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셀리는 원한과 저주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 하고 있다. 프로메테우스가 그의 잃어버린 신성을 회복하는 일은 자신과의 격렬한 투쟁을 요구하는 것이다. 프로메테우스는 비극적인 결말에 대한 선견지명 없이 인간성을 상처 내는 자에게 힘을 주었다. 인간의 영혼이 만들어낸 악은 매우 뿌리가 깊어서 한 번에 없어질 수 없는 것이다. 그가 외적으로는 저주를 철회했을지라도, 아직까지도 무의식 속에는 저주가 잠재해있다. 그는 자신 속에 내재된 선과 악의 투쟁을 치러야 하는데, 이러한 점은 “대지” (Earth), “복수의 여신” (Fury), “주피터의 환영” (Phantasm of Jupiter), “정령” (Spirit), “팬시아” (Panthea), “이온” (Ione)같은 등장인물을 통해서 제시된다.

그는 주피터에 대한 미움과 경멸을 벗어나려고 애쓰지만, 그의 마음에는 주피터에 대해 오래전부터 있었던 복수심과 새롭게 생겨난 동정심이 갈등을 일으키고 있었다. 결국 그에게는 다시 주피터를 미

워하는 마음이 강해지게 되자, 그는 주피터에게 보냈던 저주를 다시 듣고자 하는 열망에 사로 잡히게 된다. 그러나 그는 저주를 하는 것은 악한 짓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자신이 그러한 저주를 되풀이하기를 원하지는 않는다(PU, I, 218-20). 그는 제 삼자를 통해서 그 자신이 했던 저주를 듣고자 한다.

“대지”는 주피터가 지배하고 있는 동안에 자연과 나라 모두는 불행해졌다고 말한다.

대지: 바위투성이의 언덕들에 있는 말없는 동굴들은
그때 외쳤다, “불행!”; 빈 하늘은 대답하였다,
“불행!” 그리고 대양의 자주 빛 파도들은
육지로 기어오르며 세차게 내리치는 바람들에게 소리쳤다.
그리고 창백한 나라들은 그 소리를 들었다, --“불행!”

The Earth: The tongueless Caverns of the craggy hills
Cried, "Misery!" then; the hollow Heaven replied,
"Misery!" And the Ocean's purple waves,
Climbing the land, howled to the lashing winds,
And the pale nations heard it, --"Misery!" (PU, I, 107-111)

“대지”는 그녀가 저주를 말하지는 않겠다고는 했지만, 대지위의 모든 것들을 불행하게 만든 주피터에게는 원한이 많았다. 그래서 그녀는 프로메테우스에게 무덤 아래에 있는 세계를 찾아가서 주피터의 환영을 불러내서 주피터에게 복수를 하라고 재촉하게 된다.

대지: 뜻대로 불러라
그대 자신의 유령, 혹은 주피터의 유령을,
...

질문하라 그러면 그들은 대답해야만 한다 -- 비바람이 몰락한 궁전의
버림받은 문을 열고 지나치는 것처럼
그렇게 최고권위자의 복수가
빈 그림자들을 열고 지나갈 수 있다.

The Earth: Call at will
Thine own ghost, or the ghost of Jupiter,
...
Ask and they must reply -- so the revenge
Of the Supreme may sweep through vacant shade
As rainy wind through the abandoned gate
Of a fallen palace. (PU, I, 210-8)

프로메테우스가 듣는 언어는 자기가 원래 주었던 언어가 아닌 왜곡된 언어였다. 그래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다. 오직 한 가지 그가 아는 것은, 그것이 자신의 음성이 아니라는 사실뿐이다. 그러나 그 말의 내용은 다름 아닌 자신의 저주로서, 프로메테우스가 이전에 저주한 것과 꼭 같은 것이다. 상상력으로 “대지”의 말을 해석해낸 프로메테우스는 지하세계로 내려간다. 그의 저주를 다시 불러내기 위해서였다. 그는 “주피터의 환영”을 소환했고, 거만하고 차갑고 미움으로 가득 차 있는 “주피터의 환영”의 모습은 주피터의 분신이었다. (PU, I, 272-74) 그러나 동시에 “주피터의 환영”은 이전에 저주를 퍼부어 대던 프로메테우스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다.

주피터의 환영:

악마여, 나는 고요하고 확고한 마음으로 그대에게 항거하노라!
나는 그대가 고통을 끼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라고
그대에게 명령한다. 신들과 인류의 더러운 독재자여,
한 존재만을 그대는 정복하지 못하리라.

And my own will. (PU, I, 272-74)

그에게 주피터는 아직 전능한 존재이지만, 이제 그는 주피터의 실체를 파악하게 되었다. 주피터의 존재를 가능하게 했던 것은 그 자신이었던 것이다. 『해방된 프로메테우스』에서 셸리는 주피터의 “전능함”의 상대성을 주장 한다. 프로메테우스는 저항할 수 없는 힘이 아닌, 그 스스로 거짓 신을 받아들인 것, 그가 전에 만들었던 소외를 스스로 용인했기 때문에 희생을 당한 것이고, 이제 프로메테우스는 그것에 동의하는 것을 거절함으로써 그러한 전능함을 파괴하고 위협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주피터의 실체를 파악하고 그를 거부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 프로메테우스가 주피터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셸리에게 “믿음은 믿는 사람에 속하는 심리적인 상태이지, 믿어지는 사물의 속성이 아닌 것”이다 (Vol., V, 89).

“주피터의 환영”은 자유로워지고자 하는 인간의 열망에 대항하는 주피터의 무기이다. 그것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고,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다. 인간이 그러한 실체 없는 수단을 인정하게 된다면, 인간은 계속 예속 상태에 있게 되는 것이다. “주피터의 환영”은 주피터의 모습뿐만 아니라 프로메테우스의 모습도 나타낸다. 도덕적 의지가 패배했을 때는 프로메테우스도 주피터와 동일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프로메테우스는 “주피터의 환영”의 모습에서 그의 모습을 발견하자 고통스러워하면서 “주피터의 환영”을 돌려보낸다.

셸리는 프로메테우스를 통하여 피로 시작된 혁명은 또 다른 피의 혁명을 부른다는 역사의 순환적인 움직임을 벗어나려면 미움에는 미움으로 대응하지 말고, 이해와 사랑으로 다가가야 한다는 점을 보여 주고자 했다. 미움을 버리고 동정심을 되찾을 때, 프로메테우스는 우

주를 지배 하는 힘, 즉 사랑과 결합하여 그의 운명과 인류의 역사까지 통제하게 되는 것이다.

자기가 했던 저주에 대해 후회를 하면서 완전히 저주를 철회한다. “오 어머니, 이것이 제가 한 말이었던가요?” 알렉산더(William Alexander), 우드베리(George Woodberry), 스트롱(A. T. Strong) 등 다수의 비평가들은 ‘저주의 후회’를 프로메테우스가 주피터에 대해 미움을 극복하고 그를 용서하는 의미로 이해한다(Zillman 349-50). 이들에 의하면, 프로메테우스의 진정한 해방은 주피터에 대한 용서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 용서의 증거가 “저주의 후회”라는 것이다. 이런 프로메테우스의 후회하는 태도에 대한 대지의 반응은 프로메테우스의 완전한 패배로 단정하여 몹시 슬퍼하며 울부짖는다. 이것은 지배계급에 대한 피지배계급의 패배이며, 언젠가는 자유를 쟁취 할 수 도 있을것 이라는 일말의 희망도 사라져 버리게 만드는 비참한 결말이다.

프로메테우스: 오 어머니, 이것이 제가 한 말이었던가요?

Prometheus: Were these my words, O Parent? (PU, I, 302)

대지: 슬프다, 오호라 참으로 슬픈 나여,
주피터가 마침내 그대를 거꾸러트렸구나.
땅이여 바다여, 통곡하라, 크게 울부짖어라,
대지의 찢어진 마음이 너희들에게 화답하리라.
산 자의 영혼과 죽은 자의 영혼아, 모두 울부짖으라
그대들의 피난처요 그대들의 지킴이가 패하여 거꾸러졌도다.

The Earth: Misery, O misery to me,
That Jove at length should vanquish thee.

Wail, howl aloud, Land and Sea,
The Earth's rent heart shall answer ye.
Howl, Spirits of the living and the dead,
Your refuge, your defence lies fallen and vanquished.(PU, I, 306-11)

저주를 철회하고 도덕성을 회복한 프로메테우스에게 “머큐리”(Mercury)와 “복수의 여신”(Fury)이 나타난다. 이 악들은 프로메테우스 자신의 비밀을 누설하지 않으면 영겁의 고통 속으로 굴러 떨어질 운명에 처해 있다고 협박한다. 그리고 비밀을 알려주면 세상의 즐거움을 향유할 수 있다고 유혹 한다. 여기서 프로메테우스의 비밀이 무엇인지 정확히 들어나고 있지는 않지만 비밀의 누설과 관련되는 것은 프로메테우스의 선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선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프로메테우스의 끊임없는 투쟁의 노력과 불굴의 의지라고 추정한다. 와셔먼(Wasserman)이 프로메테우스의 비밀의 누설이 결국은 그의 복종의 행위라고 주장하는 것도(287-88), 주피터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비밀의 내용이 아니라 비밀의 발설로 상징되는 프로메테우스의 굴복이라는 의미이다. 프로메테우스가 악들에 굴복하지 않은 것은 주피터의 통치가 반드시 끝나리라는 확신과 어떤 방법으로든 그것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선한 인간들이 압제자의 지배가 끝나고 자유롭고 평등한 세상이 도래할 것이라고 확신 한다면 억압과 비참한 사회현실을 인내하며 자신들의 주장을 폭력이 아닌 도덕적으로 선한 인간 본성을 유지하며 새로운 세상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머큐리는 등장하면서부터 자신이 찾아온 행위는 결코 자신의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역설한다. 자신의 뜻이 아닌 아버지인 주피터의 뜻에 복종할 수 밖에 없는 머큐리의 상황은 현대를 살아가

면서 행동하지 않는 지식인들의 모습과 많이 닮아있다. 그리고 머큐리는 고뇌하고 갈등하는 프로메테우스의 또 다른 심리 표출이기도 하다.

머큐리: 그대는 현명하고, 의지가 굳고 선하다,
그러나 전능자에 대항해서
홀로 맞서려 하다니 허사로다,

Mercury: Wise art thou, firm and good,
But vainly wouldst stand forth alone in strife
Against the Omnipotent, (PU, I, 360-62)

머큐리는 떠나고 이제 “복수의 여신”(Fury)이 남아서 프로메테우스와 대면한다. 복수의 여신은 유혹이 아닌 고통의 단계이다. 그들은 프로메테우스의 머릿속에 잠재된 무서운 생각이며 더러운 욕망이다. 캐머론은 이들이 나폴레옹의 군대와 조정의 모든 권력을 쥐고 있는 지배 계급을 대표한다고 해석한다. 그에 의하면 이들은 정치나 역사적인 면에서 지배계급 전체와, 권력을 유지하는 수단으로서의 모든 종류의 힘을 가리키는 동시에 윤리적 사상에서 인간을 억압하여 괴롭히는 모든 종류의 사상을 가리킨다(Cameron:1974). “복수의 여신”은 그리스 비극에서는 정의의 사자들이었으나, 여기에서는 주피터의 “모든 것이 잘못 창조된 두뇌”(PU, I, 448)에서 나온 존재들로서, 프로메테우스의 어두운 잠재력의 또 다른 양상이다.

세 번째 복수의 여신: 그대는 우리들이 그대를 통하여 하나씩
동물 같은 삶을 살 것이라고 생각한다. . .
우리가 그대의 머리 속의 참혹한 생각들일 것이라고

그리고 그대의 놀란 가슴 주위의 더러운 욕망일 것이라고
그리고 고통처럼 기어가는
그대의 미로 같은 혈관들 속의 피일 것이라고.

Third Fury: Thou think'st we will live through thee, one by one,
Like animal life;. . .
That we will be dread thought beneath thy brain.
And foul desire round thine astonished heart,
And blood within thy labyrinthine veins
Crawling like agony. (PU, I, 483-491)

이처럼 프로메테우스의 머리와 가슴과 혈맥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복수의 여신”은 “주피터의 환영”처럼 프로메테우스의 무의식 속에 숨어있는 악의 어두운 충동이다. “복수의 여신”은 프로메테우스에게 부당한 사회적 여건의 속박을 철폐하기 위한 가장 위대한 인간적 노력 이었던 프랑스 혁명은 배신감만 안겨주었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가르침을 전파한다는 명목 하에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시키는 일환으로 종교 전쟁을 일삼는 거대한 제도화된 권력 집단이 되어 영혼을 스스로 제어하기 위한 인류의 가장 위대한 모범이었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왜곡되었다. “복수의 여신”은 진리를 밝히려는 프로메테우스의 노력이 허사였음을 증명하기 위해 프랑스혁명의 이미지와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실패의 사례로 제시한다.

코러스: 보라! 저 넓은 지평선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는 도시가
눈부신 하늘로 연기를 토하는구나.
저 절망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여라!
그것은 자기가 불 밝힌 신념을 찾아 울부짖는

그의 온유하고도 유순한 영이다.
다시 보라. 그 불꽃들은 줄어들어
거의 반딧불의 등잔만큼만 남았도다.
남은 잿더미 주변의 살아남은 자들은
두려워하며 한데 모인다.

Corus: Look! where round the wide horizon
Many a million-peopled city
Vomits smoke in the bright air.
Hark that outcry of despair!
'Tis his mild and gentle ghost
Wailing for the faith he kindled.
Look again, the flames almost
To a glow-worm's lamp have dwindled:
The survivors round the embers
Gather in dread. (PU, I, 551-59)

이 모든 것은 인간의 손과 마음에 의하여 저질러진 일이기 때문
에, 셸리에게 있어서 이러한 결과는 단순한 혁명의 실패가 아니라,
도덕적 실패로 귀결된다. “복수의 여신”은 도덕적 무정부의 상태의
단적인 예를 다시한번 보여준다.

복수의 여신: 주변 하늘과 아래 땅은,
모두 무시무시하고, 인간의 손들로 만들어진
인간 죽음의 두꺼운 형체들로 가득하도다.
그리고 어떤 것들은 인간의 마음이 만들어 냈을 법하도다.
인간들은 쩡그린 얼굴과 웃는 얼굴에 의해 천천히 죽임을 당하니까.

Fury: The heaven around, The earth below,
Was peopled with thick shapes of human death,

All horrible, and wrought by human hands,
Tho' some appeared the work of human hearts,
For men were slowly killed by frown and smiles. (PU, I, 586-590)

선한 마음을 간직한 인간은 선한 마음을 실현시킬 힘이 없고, 힘이 있는 자는 선한 마음이 없으며, 지혜로운 자는 사랑이 없고, 사랑이 있는 자는 지혜가 결여 되어있는 끝없는 도덕적 빈곤의 악순환이 바로 현실의 모습이다. 동족들의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자들은 바로 이러한 부도덕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지적될 수 있다. “복수의 여신”은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인간의 노력은 결국은 과멸로 치닫을 뿐이라고 설명한다.

프로메테우스는 심한 고통에 시달린다. 그가 고통스러운 이유는 “복수의 여신”이 지적한 현실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데 있다. 그러한 면은 셸리 시대의 지식인들을 가장 많이 괴롭히는 모습이었고, 또 그들이 가장 좌절하기 쉬운 유혹이었던 것이다. “복수의 여신”들은 프로메테우스의 “절망감의 표현”이다(Cameron:1950). 그것들은 프로메테우스가 두려워하는 세상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셸리는 괴로워하는 프로메테우스의 모습을 통해 시인을 비롯한 당시 지식인들의 좌절감을 표현하고 있다. “복수의 여신”들과 프로메테우스의 관계에서, 셸리는 “복수의 여신”들 자체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과 같이 될 수도 있다는 그 자신의 두려움을 나타내고 있다. 즉 그는 주피터의 앞잡이가 나타내는 그러한 좌절감의 덫으로 빠져 들어가는 그 자신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프로메테우스는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지만, “복수의 여신”들에 굴하지 않고, 자기제어에서 오는 평온함으로 그들의 유혹을 견디며, 그들과 그들을 보낸 주피터를 비웃는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악의 지

배를 허락하지 않으려는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다.

복수의 여신: 선한 사람들은 힘이 부족하다, 쓸모없는 눈물을 흘릴 뿐.
힘 있는 사람들은 선함이 부족하다. 그들에게 더 나쁜 궁핍.
지혜로운 사람들은 사랑이 부족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지혜가 부족하다 그래서 모든 최상의 것들은
이렇게 혼란되어 악이 된다.
많은 사람들은 힘 있고 부자이고 정당해지기를 원한다.
그러나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처럼
그들의 고통 받는 동족 틈에서 살아간다.
그들은 그들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다.

Fury: The good want power, but to weep barren tears.
The power goodness want: worse need for them.
The wise want love, and those who love want wisdom;
And all best things are thus confused to ill.
Many are strong and rich, and would be just,
But live among their suffering fellow-men
As if none felt; they know not what they do. (PU, I, 625-632)

프로메테우스는 “복수의 여신”들의 존재의 본질을 파악한 것이다. 그들은 그로 하여금 변화에 대한 열망을 거두게 하기 위한 주피터의 고안중의 하나이다. 독재자는 그의 지배력을 강화하고 영속하게 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결국 프로메테우스는 과거에 범해진 오류를 극복하고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해보기 위해서 과거를 돌아본 것이다. 셸리에게 프랑스 혁명은 그 과실만 극복된다면 여전히 최고의 희망을 이룰 수 있는 혁명으로 남는다. 셸리는 주피터의 계속되는 회유를 거절하는 프로메테우스의 모습을 통해 시인의 역할을 제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결국 프로메테우스

령들”은 그의 도덕적인 의지가 승리할 때 각각 현실화된다. “복수의 여신”들과 “인간 마음의 정령들”은 셸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양면가치를 나타내는 존재”이다(Punter 45). 그들의 존재의 위상은 그들에 대한 프로메테우스의 태도에 달려있는 것이다.

셸리는 프로메테우스의 해방을 가능하게 만드는 요건의 핵심은 자신의 도덕성 회복 의지이다. 그러나 해방을 완성 시킨 것은 팬시아의 꿈을 통해 프로메테우스의 도덕성 회복의지를 알고 데모고르곤을 찾아간 아시아에 의해서이다. 프로메테우스는 아시아와 사랑의 결합이 되어야만 그의 본성인 신성을 회복하게 되므로, 데모고르곤을 찾아서 떠나는 여행길은 쉽지 않다. 이 여행은 프로메테우스의 완전한 해방을 위한 혁명 수행의 길이기도하다. 프로메테우스의 마음에서 미움, 복수심이 사라지고 도덕성을 회복했기 때문에 아시아는 프로메테우스의 완전한 자유와 우주의 자유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데모고르곤을 찾아가는 힘든 여행길에 오른다.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데모고르곤의 동굴에 있는 예언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아시아뿐이다. 아시아와 팬시아는 나이팅게일이 가득한 그늘진 축축한 숲을 통해 마침내 데모고르곤의 동굴인 산 중간에 있는 뾰족한 바위의 꼭대기로 갔다. 정령들은 아시아를 그들의 손 안에 놓고 모든 자연의 동굴들보다 더 깊은 곳에 있는 데모고르곤의 왕좌로 내려가라고 재촉한다. 볼 수 없는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늘지고”, “구름 낀”, “베일로 가려진”, “빛장이 걸린” 단어들로 암시되어 있는 가시적인 장벽들을 넘어서 그것을 꿰뚫고 들어가는 여행은 시간과 공간의 여행이 아닌 “인식의 여행, 즉 인식을 깨우치기 위한 훈련 과정”으로 볼 수 있다 (Leighton 85) 아시아와 팬시아는 영혼들의 도움으로 프로메테우스의 빛과는 대조적인 어두움을 발산하는 데모고르곤을 만나

게 된다. 데모고르곤의 모호한 형상은 베일이 벗겨지면서 분명해지는 것 같았다. 그러나 팬시아가 볼 수 있는 것은 어둠뿐이다. 팬시아는 데모고르곤을 거의 부재인 것처럼 묘사한다. 데모고르곤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어둡다. 그러나 분명히 그는 존재한다. 셸리의 인식에 의하면 어두움은 정신의 단절과 무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인 정신 활동을 유발하는 또 다른 상태가 되는 것이다. 베일이 벗겨진 데모고르곤은 팬시아에 의해 다음과 같이 묘사 되고 있다.

나는 권좌를 채우는
엄청난 어두움을 본다. 그리고 어둠의 광선은
주위에 말하고 있다. 자오선에 있는 태양에서 빛이 나오듯,
볼 수도 없고 형태도 없으며-사지도
형태도-운곽도 없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살아있는 영혼임을 느낀다.

I see mighty Darkness
Filling the seat of power; and rays of gloom
Dart round, as light from the meridian Sun,
Ungazed upon and shapeless—neither limb
Nor form—nor outline; yet we feel it is
A living Spirit (PU, II, iv, 3-8)

프로메테우스는 악의 기원에 대해 묻지 않은 반면에 아시아는 누가 이런 악을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계속 물어보는 “열정적인 이론가”이다(Pottle 138). 정신적인 악의 기원에 대해서, 즉 미움, 죄, 아시아가 데모고르곤의 어두운 굴속에서 데모고르곤의 명확하지도 않은 대답을 통해서 진리를 찾아가는 과정은 인간 정신의 창조성을 옹

호하는 셸리의 시학의 특성을 알게 하는 대목이다. 아시아는 “알고 싶은 것을 물으라”(PU, II, iv, 6)는 데모고르곤에게 악을 창조한 모든 노예의 우두머리가 누구인지를 묻는다. 아시아는 이전에 품어 왔던 의문들을 데모고르곤과의 대화라는 형식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직접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의식 깊은 곳에 있는 정신을 일깨우는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나 데모고르곤은 우주의 절대적인 힘을 소유한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아시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는다.

데모고르곤

-만일 심연이

그 비밀을 뿔어낼 수 있다면 - 그러나 목소리가
부족하고, 심오한 진리는 형상이 없다.

그대가 이 진행되는 세계를 응시하는 것은
무슨 소용이 있는가? 운명, 시간, 호기, 기회 그리고 변화를
말하는 건 무슨 소용인가? 이들
모두는 영원한 사랑에 종속된다.

아시아

이전에 많이 질문했고, 내 마음은 그대가 한
대답과 같은 것을 주었다. 그 진리는
그 자체로 예언임에 틀림없었다.

DEMOGORGON

If the abysm

Could vomit forth its secrets. . . But a voice

Is wanting, the deep truth is imageless;

For what would it avail to bid thee gaze

On the revolving world? What to bid speak

Fate, Time, Occasion, Chance and Change? To these

All things are subject but eternal Love.

ASIA

So much I asked, and my heart gave

The response thou hast given; and of such truths

Each to itself must be the oracle. (PU, II, iv, 114-123)

형상이 없으며 모든 것은 영원한 사랑에 종속된다고 답변하는 데모고르곤의 심오한 대답은 아시아가 예전에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자기 자신의 대답이다. 데모고르곤의 역할은 아시아가 전혀 모르고 있던 새로운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이미 인식하고 있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데 있다. 데모고르곤은 종교적인 신은 아니지만 변화를 주관하는데 있어서 필연적인 힘임에는 틀림없다. 그런 데모고르곤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벌어지는데, 가령 예이츠(William Butler Yeats)는 데모고르곤을 “아름다운 서정극에 비해 성공하지 못한 창조물”이라고 지적한다(419-425). 그는 데모고르곤 때문에 이 작품의 불균형을 이룬다고 보는 것이다. 한편 쇼(Bernard Shaw)는 예이츠와 다른 각도에서 데모고르곤의 개입을 비난한다. 그에 의하면 프로메테우스가 데모고르곤이라고 불리는 매우 모호한 의인화된 존재의 개입에 의해 구출된다는 사실은 소극적인 의미의 해방이다. “왜냐하면 데모고르곤과 같은 그런 인물은 명백하게 없고, 프로메테우스가 주피터를 스스로 밀어내지 않는다면, 어떤 다른 사람도 그런 일을 실행 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Shaw 233). 이런 주장들에도 불구하고 작품속에서 아시아와 데모고르곤과의 대화는 불확실한 답변을 들으며 의미를 탐색하는 아시아의 깊은 사유를 통해 진리를 깨달아가는 하나의 과정이다. 이미 우리 문제점에 대한 모든 답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단지 인식하고 행동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울여야하는 노력, 즉 마음속 깊은 곳에

간직되어있는 우리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 일려는 의도적인 인식이 부족해서 그동안 답답함만을 느끼는 인간의 인지 능력을 아시아가 그려 내고 있다. 데모고르곤은 낮의 태양 못지않게 강한 광선을 뿜는데, 이것은 객관적인 실재의 이해를 가능케 하는 태양 없이도, 인간이 정신 능력을 통해 진리를 얻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데모고르곤과의 만남을 통해서 혁명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된 아시아는 이상적 존재로 변신하는데, 이것은 극의 진행 가운데 구체적으로 사건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다. 아시아를 태운 온순한 눈을 가진 마부가 모는 마차는 눈 덮인 산꼭대기의 구름 사이에서 멈춘다. 여기에서 아시아는 변신하게 되는데, 변화된 아시아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 팬시아는 그녀의 아름다움에서 나오는 광휘를 볼 수 없다고 말한다. 팬시아는 어떤 좋은 변화가 “기본”(elements) 내에 작용하여 아시아의 존재의 베일을 벗겼다고 말한다(PU, II, v, 16-20). 여기서 “볼 수 없는”(invisible) 광휘는 아시아가 이데아 혹은 진리 그 자체로 변화되었음을 뜻한다. 『시의 옹호』(*A Defence of Poetry*)에서 셸리는 시가 세계로부터 친근함이라는 베일을 벗기고, 모든 형태의 정신인 본모습을 드러낸 채 잠자는 명백한 미를 그대로 드러내 놓는다고 주장한다(505).

세상을 아름다움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전에는 존재감조차 인식하지 못했던 많은 것들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자신의 곁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은 외부적인 변화가 아니고 자신의 인식의 변화이다. 도덕성을 간직하고 사랑의 마음을 곁에 두기 위해서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프로메테우스가 속박에서 풀려나고 자신이 은거할 동굴을 향기 나는 식물로 덮인 낙원 같은 공간으로 묘사한다. 이전에 묘사된 동

굴은 신비롭지만 어둡고 혼란스러운 공간이었음에 반해 여기서의 동굴은 충만하고 질서 잡힌 아름다운 곳으로 묘사된다.

향기 나는 무성한 덩굴 식물이
잎과 꽃으로 햇볕을 가려 우두컴컴한
동굴이 있다.
에메랄드 광맥으로 길이 나고, 깨우는 소리를 내며
솟는 샘이 한 가운데에 있고,
곡선의 지붕으로부터 산의 얼어붙은 눈물이
눈, 은, 혹은 긴 다이아몬드 침탑처럼
의심스러운 빛을 뿌리면서 아래를 향해 매달려있다.
그곳에는 나무에서 나무 바깥쪽으로
끊임없이 움직이는 속삭임과
새와 벌 소리가 들린다. 그리고 주변에는 온통 이끼 낀 자리와
길고 부드러운 풀로 덮인 거친 벽이 있다.
이 소박한 거처는 우리 자신의 것이 될 것이다.
거기에 우리는 앉아 우리 자신은 변하지 않은 채
시간과 변화 세계의 흥망성쇠를 이야기할 것이다.
인간을 변화로부터 숨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There is a Cave
All overgrown with trailing odorous plants
Which curtain out the day with leaves and flowers
And paved with veined emerald, and a fountain
Leaps in the midst with an awakening sound;
From its curved roof the mountain's frozen tears
Like snow or silver or long diamond spires
Hang downward, raining forth a doubtful light;
And there is heard the ever-moving air
Whispering without from tree to tree, and birds,

and bees; and all around are mossy seats
And the rough walls are clothed with long soft grass;
A simple dwelling, which shall be our own,
Where we will sit and talk of time and change
As the world ebbs and flows, ourselves unchanged-
What can hide man from Mutability?- (PU, III, iii, 10-25)

프로메테우스가 도덕성을 회복하면서 해방을 맞게된 세상은 지배와 억압이라는 대결 구도가 사라지고 인간은 평등해진 것이다. 프로메테우스는 “시간의 정령”(The Spirit of the Hour)에게 주피터의 몰락과 새로운 황금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힘을 나타내는 소리를 주면서 인간 세상에 나가 불도록 한다. 그리고 그에게 세상에서 일어난 변화를 보고 오라고 명령한다.

시간의 정령: 그리고 보십시오! 왕좌들에는 왕들이 없고, 인간들은 영혼들이 걸어 다니는 것처럼 서로 함께 걸었습니다.
아무도 아첨하지 않고, 아무도 짓밟지 않았습니다.
인간들의 이마들 위에는 더 이상
증오, 경멸, 혹은 공포, 이기심 혹은 자기 경멸은
새겨있지 않았습니다,...

The Spirit of the Hour:
And behold! thrones were kingless, and men walked
One with the other even as spirits do,
None fawned, none trampled; hate, disdain or fear,
Self-love or self-contempt on human brows
No more inscribed,...(PU, III, iv, 131-36)

시간의 정령: 그리고 넓은 대지 위에 신선한 빛과 이슬을 내리는

자유로운 하늘처럼,
솔직하고 아름답고 친절 한 여자들 또한 변했다.
관습의 악한 폐해로부터 벗어나고 순수해진 온화하고 찬란한 모습들,
그들이 전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지혜를 말하면서
전에는 느끼는 것조차 두려워했던 감정들을 보이면서...

The Spirit of the Hour: And women too, frank, beautiful and kind
As the free Heaven which rains fresh light and dew
On the wide earth, past ; gentle, radiant forms,
From custom's evil taint exempt and pure;
Speaking the wisdom once they could not think,
Looking emotions once they feared to feel... (PU, III, iv, 153-58)

시간의 정령을 통해서 인간 세상을 본 결과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해졌으며, 이러한 사회에서는 여성도 남성과 같은 인격체로 대우를 받으며, 전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지혜를 여성들도 말하며 감히 주장할 수 없었던 권리를 당당히 요구 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 지배구조가 없어지고 모든 인간이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사회가 실현된 것이다.

V. 결 론

셸리의 인류애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인간은 제도와 정치로부터는 신체의 안전을 보장 받으며 자유를 만끽하는 삶을 살아야하고 종교로부터는 상처받은 영혼의 치유를 받아야 하는것이 인간의 기본 권리이다. 만약 정치와 종교로 인해 억압과 상처만 받는다면 그것은 존중하고 지켜 나가야 하는 소중한 유산이 아니라, 투쟁해서 반드시 타파해야하는 대상에 불과한 것이다. 이런 사상을 지닌 시인이 주장하는 투쟁 방법은 폭력이 아니고 일반대중들의 인식 변화이다. 그리고 인식 변화를 이끌어야 하는 것은 바로 시인들의 몫이고 셸리는 그 역할의 중심에 자기가 존재한다고 믿었다. 이런 개혁적인 성향을 지닌 시인이 걸어가야 했던 현실의 길은 너무나 험난했고 고된 여정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의 주위에 있었던 특히 그를 사랑했던 사람들이 받았던 고통은 견디기 힘들었을 것이다. 특히 셸리의 자유주의적인 애정관은 문란한 사생활로 비춰져 많은 세인의 지탄을 받아야만 했다.

셸리는 일생동안 종교, 정치, 사회, 가정의 모순들을 극복하기 위해 행동으로 실천하며 맞서 싸운 행동가였으며, 일반대중들의 고귀한 도덕성이 제도나 권력에 의해 마비되어가는 참담한 사회 현실을 똑바로 인식시켜주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던 사상가였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너무나 젊은 나이에 요절함으로써 시대를 초월하여 공감 할 수있는 훌륭한 정신적인 유산을 좀 더 많이 남기지는 못했다.

본 논문을 통해 셸리의 인류애와 평등사상에 기초해서 자유로운 사회를 만들려고 노력했던 시인의 사상을 살펴보았다. 시인은 프로

메테우스의 해방의 과정을 통해 진정으로 갈구하는 자유와 세상의 면모를 보여 주려했다. 그런 시인이 갈구하는 세상은 힘을 가지고 있는 자가 선한 마음을 품어서 인간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선택적 세상이 아니라 일반대중들이 자신들의 인식 변화를 통해서 스스로 만들어가는 세상이다. 이런 세상에서의 진정한 주인은 정치나 종교와 같은 제도가 아니라 대다수의 일반대중들이다.

셀리는 인간성이 상실되어가고 좌절감이 팽배하였던 시대에 이상적인 사회에 대한 열망을 불러일으키려고 노력하였다. 그리고 모든 인간들이 평등하고 자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이상 사회에 대한 희망을 독자들에게 심어 주려고 부단히 애썼던 것이다.



인용 문헌

- 손달례 『P.B. Shelley의 시에 묘사된 거부의 태도』.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제9권. 2008. 10.
- 신현승 옮김. 『유럽의 낭만주의 시대』. 타임라이프 세계사 17 근대유럽, 가람기획, 2007.
- 이원철 『셸리의 유토피아 지향적 자유정신』.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3.
- 이일재 『셸리시에 나타난 시인의 정체성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1.
- Bloom, Harold. *Shelley's Mythmaking*. Ithaca: cornell UP, 1969.
- Cameron, Kenneth Neil. *The Young Shelley: Genesis of a Radical*. New York: Macmillan, 1950.
- _____. *The Golden Years*. Cambridge, MA: Harvard UP, 1974.
- Cronin, Richard. *Shelley's Poetic Thoughts*. London: Macmillan, 1981.
- Dawson, P. M. S. "Shelley and Class." *The New Shelley*. Macmillan, 1991.
- Ferber, Michael. *The Poetry of Shelley*. New York: Penguin Books, 1993.
- King-Hele, Desmond. *Shelley: His Thought and Work*. London: Macmillan, 1984.
- Leighton, Angela. *Shelley and The Sublime*.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1984.

- Pottle, Fredrick A. *English Romantic Poets: Modern Essays in Criticism*. 2nd ed. Ed. M. H. Abrams. New York: Oxford UP, 1975.
- Punter, David. *Romanticism and Ideology: Studies in English Writing 1765-1830*. London: R. K. P., 1981.
- Rader, Melvin M. "Shelley's Theory of Evil." *Shelley: A Collection of Critical Essays*. Ed. George M. Ridenour.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65. 103-10.
- Shelley, Percy Bysshe. *Shelley's Poetry and Prose: Authoritative Texts, Criticism* Eds. Donald H. Reiman and Sharon B. Powers. New York: Norton, 1977.
- Tetreault, Ronald. *The Dramatic Lyric. Shelley*. Ed. Michael O'Neil. London & New York: Longman, 1993.
- Wasserman, Earl R. *Shelley: A Critical Reading*.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 Press, 1971.
- Watson, J. R. *English Poetry of the Romantic Period 1789-1830*. London and New York : Longman, 1985.
- White, Newman Ivey. *Portrait of Shelley*. New York: Alfred A. Knopf, 1968.
- Yeats, William Butler. "Prometheus Unbound." *The Spectator*, CL, 1933.